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극수필 03 | 노비 문서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지문인 희곡 「노비 문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인간 존엄과 자유를 향한 갈등**을 다루는 문제와, **지배층의 위선과 기만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단다. 특히 노승과 이자현의 대립하는 가치관을 비교하거나, 방량이라는 조건이 전쟁 전후에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이 작품이 쓰인 **1970년대의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주제 의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



선생님, 저는 이 부분에서 노승이 제안하는 방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관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방량은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어 자유민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 노승은 노비들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만 기꺼이 목숨을 던질 것이라고 본 거지. 반면 부사나 판관 같은 관리들은 전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노비를 풀어주면 부호들이 반발하고 관청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기득권의 논리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선생님, 지문 중간에 노승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이 발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핵심 대사구나! 이는 **국가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민본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야. 노승은 피난 가서 궁녀들과 즐기는 무책임한 왕을 위해 싸우라는 관리들의 허구적인 애국심을 비판하며, 나라의 실체는 곧 백성임을 강조한 것이란다.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극수필 03 | 노비 문서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공격**(민중의 희생이 요구되는 극적 장치. “**몽골군의 공격**이라는 위기 상황은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 설정된 극적 장치로 볼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해 오자 충주성은 위기에 빠진다. **이를 먼저 알게 된 부호들과 사대부들은 성을 빠져나가고 상당수의 군사들도 도주한다.**(충주성을 지켜야 할 지배층이나 군사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임. 책임감 없는 지배층의 모습을 비판함.) 상황이 위급해지자 노승은 노비군을 조직하자는 제안을 한다.

노승: 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들도 고려 사람, 나라가 위급한 마당에 저들인들 무심할 리가 없을 것이오.

이자헌: 새삼스럽게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잔 말이오?

노승: 아니오, 저들에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오. / 이자헌: 조건이라면?

노승: **방량**(노비를 놓아 주어 양민(良民)이 되게 하던 일)하는 것이오.

이자헌: (놀라) 방량이라니? 노비를 놔준단 말이오?

노승: 그렇소, **천적**(노비의 명부)에서 풀어 주어 자유민을 만드는 것이오.

부사: 노비를 방량한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감.

판관: 그건 불가한 일이오. **고려 개국 이래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판관의 거절 이유①) 노비를 방량한다 해 보십시오.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십상이오.**(판관의 거절 이유②. ‘판관은 노비를 풀어줄 경우 노비 소유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관이 소유하고 있는 **관노들을 풀어놓으면 일은 누가 다 합니까?**(판관의 거절 이유③)

노승: 판관, 지금은 싸움에 이기느냐, 모두 죽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마당이오. 이 싸움에 패하면 충주성은 고사하고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텐데, 도망하기에 바쁜 부호들 불평을 두려워해야겠소?

부사: **노비들을 일시 징발하는 건 좋으나 방량한다는 처사는 지나친 일인 것 같습니다.**(‘노승은 방량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부사는 징발을 통한 전투력 확보를 중시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노승: 부사, 저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싸우길 기대하겠소? 자기를 혹사한 주인을 위해 죽어 달라고 말할 수 있소?

부사: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부사는 유교적 명분을 중시함.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1970년대 지배 세력의 비민주적 의식이 형상화됨.)

노승: 나라와 왕이라고? 나라가 누구의 것이오?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오.**(민본주의. ‘노승은 백성을 나라의 주인으로 보고, 위정자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있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오? 섬에 피난하여 궁녀의 치맛자락에 둘러싸여 있소.**(당대 지배층을 비난함.) 그런 왕을 위해 싸워 달라고 빌겠소?

부사: (화가 났다.) 대감, 스님의 말씀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이자헌: 대사 고정하십시오.

노승: 언성을 높여 미안하오. 그러나 노예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이르는 말이오.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면 저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려 할 것이오.**(강제 징발보다 스스로를 위해 싸우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이자헌: 자유를 위해서? / 노승: 그렇소. 자유요!

이자헌: 자유…… 심히 어려운 뜻이오.

노승: 어려움을 걸지 않고 싸움에 이기기는 어렵소. 대감, 결단을 내리시오.

이자현: 판관은 어떻게 생각하오?

판관: 후일이 걱정이 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지금 처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판도리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에 나서 주는 것이니까요.(당황스럽지만 또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이해하고 수긍함.)

이자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중략 부분 줄거리] 전쟁에 승리하면 방랑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노비군이 조직되고, 노비군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격퇴한다. 자유를 얻는다는 기대에 벅찬 노비들은 장터에서 잔치와 놀이를 즐긴다.(‘노비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터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자현 대감이 잔치와 놀이를 금지하자(‘이자현이 노비들의 잔치를 금지하는 모습에서 민중의 자발적인 결집을 두려워하는 지배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장한 노비들의 불만과 의심이 커진다.

노승: 대감! 어떻게 된 일이오? 장터에서 놀이를 금하게 하셨다니? 싸움이 끝난 후 돼 가는 일을 알 수가 없구려!

이자현: 대사!(노승을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함.) 잘 오셨소. 나도 할 얘기가 있소. [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비록 양천의 구별은 없으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시켜야 하므로 마땅히 존비가 있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음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함. ‘이자현은 신분에 따른 상하의 분별이 사회를 유지하는 당연한 질서라고 믿고 있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군자와 소인이 서로 달라 각각 일가를 형성하고 노예를 두어 상하의 분별을 정해 온 것이 우리의 천여 년 내려온 생활이오!(그동안의 관습을 근거로 들어 주장함.) 그렇지 않소? ]([ :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함. 이자현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념이 당연한 이치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노승: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귀천이 이루어짐을 소승이 모르는 건 아니오. 그러나 대감, 처음 우리 선조의 노비는 일종의 형벌로서 기한이 지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였소.(본래 노비 제도의 이치) 그런데 지금 보오, 우리 고려는 한번 종이 되면 좀처럼 면천(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이 됨.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에서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상민이 되는 것으로, 노승은 이것이 고려에서 매우 어렵게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기 어려워 자자손손 종신토록 우마와 같이 재산처럼 팔고, 팔리는 천하 고금에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지 않았소?(1970년대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던 민중들의 삶이 투영됨.) 그래서 노예의 숫자는 늘어 가고 결국 양반과 적대하는 양분된 세상이 되어 버렸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이자현: 허나 노비를 해방시키기 위해선 나라의 풍속부터 고쳐야 하겠소. 하루아침에 바꾸니 혼란하여 법만 어그러져 갈 뿐이오. (노기) 노예의 신분으로서 양반 사대부의 아녀자를 넘보지 않나…… (자제하며) 정말 충주성은 옛과 같지 않소이다. 대사.

노승: 어서 규율을 세우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른 자는 벌하되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말고 공평히 행하면 저들은 대감을 따를 것이오.(노승은 공평하게 행하면 노비들이 자연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함.)

이자현: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저들을 다스릴 만한 군사가 없소.(이자현은 노비들을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함.)

노승: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선 안 되오.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하오.(‘노승은 힘보다는 인과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진정한 통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현: 대사, 다스리는 근본은 힘이오. 아무리 덕과 인을 부르짖는다 한들 인덕이나 의로움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오.

노승: [ 그러나 의롭지 못한 힘은 언젠가는 또 다른 힘에 의해 멸망하고 마오. 백성은 지극히 약한 존재이나 힘으로 눌러선 안 되오.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꾀로써 속여도 안 되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언젠가 대감을 버릴 것이오. 자고로 다스리는 자는 신의와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소. ]([ ]: 나라는 구  
성원인 백성이 주인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유지됨. **노승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신분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신의를  
중시하며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현: 그러나 국가 대사나 한 고을의 다스림에는 충성이 요구될 뿐이오. 어차피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치세**(잘 다스려져 태평한 세상)의 근본일진대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나 똑같이 자유를 누리다  
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요.

노승: **대감. 설마 저들 노비들을 배신하려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윗글의 갈등 양상을 묻는 문제에서 '신분 질서  
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가치와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가 충돌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현: 배신? 대사. [ 나는 일개 성의 목사로서 국록을 먹고 있는 몸(이자현의 합리화 근거①), **내 마음대로  
나라의 제도를 고칠 수는 없지 않소.**(이자현의 합리화 근거②) 비록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들을 방랑  
했으나 **현실이 그를 용납지 않는 걸 어떻게 하오?**(이자현의 합리화 근거③)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소. 그러  
나 난 내가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소. **나는 위로는 왕으로부터 양반 사대부  
그리고 내 가족까지 생각해야 하오.**(이자현의 합리화 근거④) ]([ ]: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노비들에게 방랑을 약속했다  
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약속을 배신함. 1970년대 민중들을 기만했던 지배 세력의 모순과 맞닿아 있음. 노비와의 약속을 배신하려는  
이자현 대감의 모습은 1970년대의 관객들에게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을 확산시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작품이 검열되  
는 주요한 원인이었음. 노비 해방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 민중들로 하여금 억압적 정치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현실  
비판적 태도를 일깨우게 함. '이자현은 자신의 지위와 가족, 지배 계층의 안위를 위해 노비와의 약속을 저버리려 하고 있어.'라는 적  
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윤대성, 「노비 문서」

### 핵심 정리

■갈래: 민속극

■성격: 사실적, 비판적

■주제: 인간 존엄의 회복과 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

■특징

- '방랑'을 둘러싼 가치관의 대립을 통해 지배층을 비판함.
- 1970년대 우리 사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직면하도록 함.
- 민중들을 기만했던 지배 세력의 모순이 잘 드러남.

### 이해와 감상

고려 시대 노비 해방 운동이었던 '만적의 난'을 소재로, 1970년대 억압적 정치 현실과 관련해 지배층의 부도  
덕과 모순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노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권위적 지배 체제와 기득권을 강화  
하려는 모순적인 지배층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현실 사회의 독자들이 부조리한 현실을 인지하고 민주주의  
와 자유를 위한 저항의 의지를 고양하는 데 기여한 작품이다. 민속극의 요소와 코러스 등 다양한 형식과 기  
법을 활용하였다는 형식적 특징도 특기할 만하다.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극수필 03 | 노비 문서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공격해 오자 충주성은 위기에 빠진다. 이를 먼저 알게 된 부호들과 사대부들은 성을 빠져나가고 상당수의 군사들도 도주한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노승은 노비군을 조직하자는 제안을 한다.

노승: 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들도 고려 사람, 나라가 위급한 마당에 저들인들 무심할 리가 없을 것이오.

이자현: 새삼스럽게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잔 말이오?

노승: 아니오, 저들에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오.

/ 이자현: 조건이라면?

노승: ㉠방랑하는 것이오.

이자현: (놀라) 방랑이라니? 노비를 놔준단 말이오?

노승: 그렇소, ㉡천적에서 풀어 주어 자유민을 만드는 것이오.

부사: 노비를 방랑한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감.

판관: 그건 불가한 일이오. 고려 개국 이래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노비를 방랑한다 해 보십시오.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십상이오. 더구나 관이 소유하고 있는 관노들을 풀어놓으면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노승: 판관, 지금은 싸움에 이기느냐, 모두 죽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마당이오. 이 싸움에 패하면 충주성은 고사하고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텐데, 도망하기에 바쁜 부호들 불평을 두려워해야겠소?

부사: 노비들을 일시 징발하는 건 좋으나 방랑한다는 처사는 지나친 일인 것 같습니다.

노승: 부사, 저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싸우길 기대하겠소? 자기를 혹사한 주인을 위해 죽어 달라고 말할 수 있소?

부사: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노승: 나라와 왕이라고? 나라가 누구의 것이오?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오? 섬에 피난하여 궁녀의 치맛자락에 둘러싸여 있소. 그런 왕을 위해 싸워 달라고 빌겠소?

부사: (화가 났다.) 대감, 스님의 말씀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이자현: 대사 고정하십시오.

노승: 언성을 높여 미안하오. 그러나 노예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이르는 말이오.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면 저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려 할 것이오.

이자현: 자유를 위해서? / 노승: 그렇소. 자유요!

이자현: 자유…… 심히 어려운 뜻이오.

노승: 어려움을 걸지 않고 싸움에 이기기는 어렵소. 대감, 결단을 내리시오.

이자현: 판관은 어떻게 생각하오?

판관: 후일이 걱정이 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지금 처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딱 도리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에 나서 주는 것이니까요.

이자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중략 부분 줄거리] 전쟁에 승리하면 방랑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노비군이 조직되고, 노비군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격퇴한다. 자유를 얻는다는 기대에 벅찬 노비들은 장터에서 잔치와 놀이를 즐긴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자현 대감이 잔치와 놀이를 금지하자 무장한 노비들의 불만과 의심이 커진다.

노승: 대감! 어떻게 된 일이오? 장터에서 놀이를 금하게 하셨다니? 싸움이 끝난 후 돼 가는 일을 알 수가 없구려!

이자현: 대사! 잘 오셨소. 나도 할 얘기가 있소.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비록 양천의 구별은 없으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시켜야 하므로 마땅히 존비가 있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군자와 소인이 서로 달라 각 일가를 형성하고 노예를 두어 상하의 분별을 정

해 온 것이 우리의 천여 년 내려온 생활이오! 그렇지 않소?

노승: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귀천이 이루어짐을 소승이 모르는 건 아니오. 그러나 대감, 처음 우리 선조의 노비는 일종의 형벌로서 기한이 지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였소. 그런데 지금 보오, 우리 고려는 한번 종이 되면 좀처럼 ㉔면천하기 어려워 자자손손 종신토록 우마와 같이 재산처럼 팔고, 팔리는 천하 고금에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지 않았소? 그래서 노예의 숫자는 늘어 가고 결국 양반과 적대하는 양분된 세상이 되어 버렸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이자현: 허나 노비를 해방시키기 위해선 나라의 풍속부터 고쳐야 하겠소. 하루아침에 바꾸니 혼란하여 법만 어그러져 갈 뿐이오. (노기) 노예의 신분으로서 양반 사대부의 아녀자를 넘보지 않나…… (자제하며) 정말 충주성은 옛과 같지 않소이다. 대사.

노승: 어서 규율을 세우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른 자는 벌하되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말고 공평히 행하면 저들은 대감을 따를 것이오.

이자현: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저들을 다스릴 만한 군사가 없소.

노승: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선 안 되오.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하오.

이자현: 대사, 다스리는 근본은 힘이오. 아무리 덕과 인을 부르짖는다 한들 인덕이나 의로움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오.

노승: 그러나 의롭지 못한 힘은 언젠가는 또 다른 힘에 의해 멸망하고 마오. 백성은 지극히 약한 존재이나 힘으로 눌러선 안 되오.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꾀로써 속여도 안 되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언젠가 대감을 버릴 것이오. 자고로 다스리는 자는 신의와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소.

이자현: 그러나 국가 대사나 한 고을의 다스림에는 충성이 요구될 뿐이오. 어차피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㉕치세의 근본일진대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나 똑같이 자유를 누리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요.

노승: 대감. 설마 저들 노비들을 배신하려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

이자현: 배신? 대사. 나는 일개 성의 목사로서 ㉖

국록을 먹고 있는 몸, 내 마음대로 나라의 제도를 고칠 수는 없지 않소. 비록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들을 방랑했으나 현실이 그를 용납지 않는 걸 어떻게 하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소. 그러나 난 내가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소. 나는 위로는 왕으로부터 양반 사대부 그리고 내 가족까지 생각해야 하오.

- 윤대성, 「노비 문서」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몽골군이 침입하자 충주성을 지켜야 할 부호들과 사대부들은 도주하였다.
- ② 판관은 노비를 풀어줄 경우 노비 소유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 ③ 노승은 전쟁의 위기 상황보다 신분제의 부당함을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았다.
- ④ 부사는 노비들이 나라와 왕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유교적 충의를 강조하였다.
- ⑤ 노비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터에서 잔치를 벌였다.

### 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대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대화나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나 행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발언을 통해 당시 사회 제도의 모순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3. 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민: 노승은 백성을 나라의 주인으로 보고, 위정자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있어.
- ② 하영: 이자현은 신분에 따른 상하의 분별이 사회를 유지하는 당연한 질서라고 믿고 있어.
- ③ 세영: 판관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법과

전례를 중시하여 방랑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 ④ 자영: 노승은 힘보다는 인과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진정한 통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 ⑤ 수민: 이자현은 자신의 지위와 가족, 지배 계층의 안위를 위해 노비와의 약속을 저버리려 하고 있어.

**4. 윗글에서 '노승'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천을 인정하면서 규율이 필요 없는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 ②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이자현과 부사의 정치적 결정을 강압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 ③ 신분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신의를 중시하며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제도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며 신분제가 국가 존립의 필수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다.
- ⑤ 백성들이 무지함을 꾸짖으며 그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 노비의 명부를 뜻하며, 여기서 벗어나다는 것은 신분적 구속에서 해방됨을 뜻한다.
- ③ ㉢: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상민이 되는 것으로, 노승은 이것이 고려에서 매우 어렵게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 ④ ㉣: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이자현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다.
- ⑤ ㉤: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의미하며, 이자현은 이를 근거로 백성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난도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당시 지배 세력은 국가적 위기나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속했던 정당한 대가나 자유는 보장하지 않았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빌려와 권력자의 기만술과 민중의 소외 문제를 비판하였다.

- ① '몽골군의 공격'이라는 위기 상황은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 설정된 극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② 노승이 강조하는 '자유'는 1970년대 민중이 갈구했던 민주적 가치를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이자현'이 노비들의 잔치를 금지하는 모습에서 민중의 자발적인 결집을 두려워하는 지배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이자현이 '국가 대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배 계층의 기만적인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노비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대우받지 못하는 결말은 민중의 승리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7. '이자현'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념이 당연한 이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습을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의 질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신분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④ 사회적 혼란을 언급하며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사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8. 윗글의 공간적 배경인 ‘총주성’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져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희망의 공간
- ②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화합하여 외세를 물리친 이상적인 공간
- ③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민중의 희생이 강요되고 기만당하는 공간
- ④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가 끝까지 수호되는 공간
- ⑤ 종교적 가르침이 현실 정리에 반영되어 평화가 유지되는 공간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노승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성을 지키기 위해 노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으로 ‘방량’을 제안한 것이다. 신분제의 부당함에 대한 논의는 전쟁 승리 후 이자현과의 대화에서 제시된다.

- ① ‘이를 먼저 알게 된 부호들과 사대부들은 성을 빠져나가고 상당수의 군사들도 도주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십상이오. 더구나 관이 소유하고 있는 관노들을 풀어놓으면 일은 누가 다 합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부사는 노비들이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승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 ⑤ ‘자유를 얻는다는 기대에 벅찬 노비들은 장터에서 잔치와 놀이를 즐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정답] ④

이 글은 희곡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 또한 공간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 ① 노승과 이자현의 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간관과 수직적인 신분 질서관의 대립이 잘 드러난다.
- ② 이 글은 희곡으로 서술자가 없이 인물 간의 대화나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놀라)’, ‘(화가났다.)’, ‘(노기)’ 등의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정서와 태도를 지시하고 있다.
- ⑤ 노승의 대사를 통해 고려 시대 노비 제도의 고착화와 부당함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3. [정답] ③

판관은 처음에는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지만, 이자현이 의견을 묻자 ‘지금 처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딱 도리는 없겠다’며 방량 제

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① 노승은 나라가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며, 피난 간 왕을 위해 싸우라는 부사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 ② 이자현은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비록 양천의 구별은 없으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시켜야 하므로 마땅히 준비가 있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에서 하늘이 백성을 낼 때 준비가 있음이 당연하며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라고 말한다.
- ④ 노승은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선 안 되오.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하오’에서 힘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며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⑤ 이자현은 마지막 대사에서 왕, 사대부, 가족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노비들을 배신하려는 기색을 내비친다.

### 4. [정답] ③

노승은 ‘나라는 백성의 것’이라 주장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며 백성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 ① **[매력적인 오답]** 노승은 귀천이 생기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어서 규율을 세우시오.’에서 알 수 있듯 규율이 있는 사회를 제안하고 있다. 규율이 필요 없는 급진적인 사회 개혁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노승은 논리적인 설득과 도덕적 호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적 권위를 내세운 강압적인 태도는 드러내지 않는다.
- ④ 노승은 신분제가 오히려 세상을 양분하여 적대하게 만든다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노승은 백성들이 어리석지 않으니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무지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다.

### 5. [정답] ⑤

이자현은 자신이 ‘국록을 먹고 있는 몸’이라며 국가의 제도(신분제)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노비들과의 약속을 어기려 한다. 즉, 국록은 백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사용된다.

- ① 지문에서 노승은 방량을 ‘천적에서 풀어 주어 자

유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② 천적은 노비 문서와 같은 개념으로, 노승은 이를 통해 노비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 ③ 노승은 고려에서 한번 종이 되면 면천하기 어려워 자자손손 노비가 되는 현실을 부당하다고 말한다.
- ④ 이자헌은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치세의 근본이라며 평등한 자유를 부정한다.

6. [정답] ⑤

윗글의 상황과 <보기>의 1970년대 상황은 지배 계층의 배신과 기만이 제시된다. 노비군이 활약했음에도 이자헌이 약속을 어기려 하는 모습은 민중의 희생이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좌절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 ① 외적의 침입은 지배층이 노비들에게 '방랑'이라는 조건을 걸고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 ② 노승이 말하는 자유는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인 동시에 1970년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의미한다.
- ③ 이자헌이 승리 후 노비들의 놀이를 금지한 것은 그들이 힘을 갖게 되자 다시 통제하려는 억압적 태도를 보여준다.
- ④ 이자헌은 국가와 체제 유지를 핑계로 노비와의 약속을 저버리는데, 이는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속했던 대가를 보장하지 않았던 기득권들의 기만적 논리에 해당한다.

7. [정답] ⑤

이자헌은 '하늘이 백성을 낼 때', '천여 년 내려온 생활' 등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습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고사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마땅히 준비가 있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소?' 등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천여 년 내려온 생활'이라는 표현에서 오랜 관습을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노승을 '대사'라 부르며 상대방의 신분을 존중하고 있지만 신분 질서나 통치 방식에 있어서는 단호

한 입장을 표현한다.

- ④ '하루아침에 바꾸니 혼란하여 법만 어그러져 갈 뿐이오'라며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8. [정답] ③

총주성은 위기 시에는 노비들의 힘을 빌려 방어하지만, 위기가 지나자 다시 노비들을 억압하고 약속을 어기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는 지배층의 기만과 민중의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① 신분제 타파가 약속되었으나 이자헌에 의해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희망의 공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 ② 외세를 물리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과 결과에서 계층 간의 갈등과 배신이 나타나므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신분제라는 전통적 가치가 유지되려 하지만, 이는 수호라기보다는 지배층의 기만으로 인한 억압에 가깝다.
- ⑤ 노승의 의견이 이자헌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가치가 반영된 공간으로 볼 수 없다.